

# ‘과로사 방지 합의’ 파업 멈춘 택배··· ‘우체국 문제’ 불씨 여전

인력충원·자동화설비 도입하기로 주 60시간, 일 12시간 안넘게 노력 업계 “분류인력 추가투입에 최선”

‘상경투쟁’까지하며 파업을 벌였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17일 현업으로 복귀했다.

전날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다.

하지만 ‘잠정’으로 합의한 터라 불씨는 여전히 남겨놓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원 6500여 명 가운데 가장 많은 2750여 명이 소속된 우체국택배노사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우체국택배를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간 줄다리기는 현재진행형이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택배사, 노조, 정부, 정치권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전날 회의에서 택배노조가 이변에 집단 행동을 하면서 파업 원인으로 지목한 ‘분류 문제’ 해결에 대해 합의했다.



택배업계 노사가 정부, 여당의 중재안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택배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북한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1월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배송만 전담키로 한 것이 잠정 합의의 골자다.

앞서 택배기사들의 상자 분류 업무 분담을 위해 CJ대한통운은 4000명,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000명씩을 현장에 투입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이들 회사는 하반기 중 분류인력을 1000명씩 추가 투입키로 약속했다.

업계 관계자는 “분류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기존 택배기사들의 분류 부담을 100% 덜어줄 수 있을지는 예단할 수 없다”면서 “인원 추가 외에 자동화 설비 도입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추이를 지켜보면서 약속한 분류인원을 최대한 빠르게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휠소터 등 택배 분류를 위한 자동

화 설비를 99% 가량 도입한 CJ대한통운을 제외한 한진, 롯데, 우체국택배, 로젠택배는 자동화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기로 했다. 자동화 설비 설치가 여의치 않다면 택배기사 2명당 1명의 분류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합의안에 담았다.

아울러 택배기사작업시간도 주 60시간, 하루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키로 했다. 다만 성수기인 설과 추석엔 밤 10시를 초과해 근무하지 않기로 했다.

게다가 통상 1년에 한 차례씩 갱신해왔던 택배 영업점과 택배기사간 계약도 오는 7월27일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에 맞춰 유효기간을 6년으로 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택배기사 부담금도 향후 택배요금을 인상할 경우 이를 통해 지원하되, 이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이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잠정 합의되고, 택배노조도 파업을 철회했지만 우정사업본부(우분)와 택배노조의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우분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잠정 합의한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간기

업의 택배기사는 주 6일 80시간 근무에 박스 1개당 수수료 750원이지만,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주 5일 50시간 근무하고 수수료가 개당 1219원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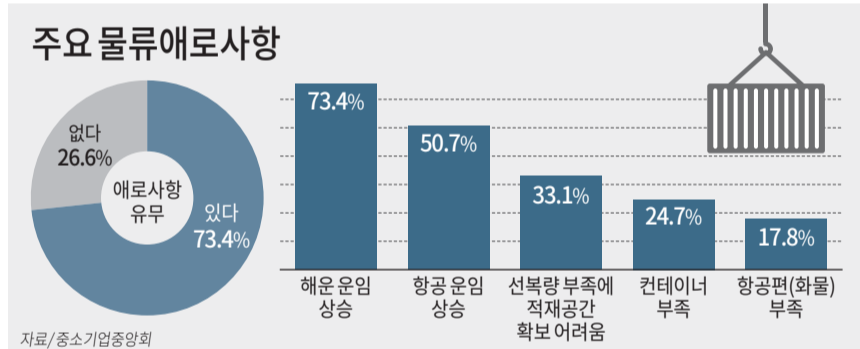
그러면서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택배기사 업무여건 실태 조사와 택배노조의 지난 6월 보도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의 월평균 수입(502만원)이 민간택배기사(488만원)보다 많고 특히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의 경우 민간택배기사가 내는 대리점 관리비(수입의 13~15%)도 없어 실질적으로 월 60만원 가량 많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우체국 소속 소포위탁배달원 수입이 민간택배기사보다 많은데 왜 ‘생떼’를 쓰느냐는 것이 우분의 속내인 셈이다.

우분은 또 앞서 민주노총 소속 택배노조와는 다른 전국우정노동조합과 우정노사협의회를 열고 ‘택배’ 명칭을 ‘소포’로 바꾸는 것도 합의했다.

‘택배 이슈’에서 우체국은 빠지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수출입 中企 10곳 중 7곳 “해운·항공운임 상승 애로”

중기중앙회, 기업 519곳 대상 조사 선복부족 33%, 컨테이너 부족 25%

수출·입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해운·항공 운임 상승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년 사이 미주 동부, 유럽 지역의 운임이 크게 올라 이들 지역과 무역을 하는 기업들 애로가 상당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운임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추가 정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입 중소기업 519곳을 대상으로 ‘수출입 중소기업 물류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17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73.4%가 애로가 ‘있다’고 답했다. ‘없다’는 26.6%였다.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물류 애로(복수응답)는 해운운임 상승이 65.4%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항공운임 상승(50.7%) ▲선복 부족(33.1%) ▲컨테이너 부족(24.7%) ▲화물 항공편 부족(17.8%) 순이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물류 애로 해결을 위한 대응책으로 선복 확보 및 운임

지원 등 정부지원 대책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 바이어 납품기간 조정을 통해 대응하거나 본선인도조건(FOB)과 운임보험료 부담 조건(CIF)과 같은 무역계약 변경도 주요 대응책으로 꼽혔다.

또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지원 방안으로는 ▲운임지원 확대(58%) ▲선복 확보 지원 확대(17.5%) ▲컨테이너 확보 지원(10.2%) ▲화물 전세기 운항(7.3%) 순이었다.

물류 애로에 따른 어려움으로는 60.5%의 기업이 영업이익 감소를 꼽았다. 제품 가격 경쟁력 저하(48.9%)와 운임상승으로 인한 해외 거래처 감소(25.2%)도 적지 않았다.

특히 영업이익 감소와 관련해선 응답기업의 26%가 물류운임 상승이 영업이익을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10%를 넘는다’고 답했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액 가운데 물류운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8%, 수입액 중 물류운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로 각각 조사됐다.

/김승호 기자

## 소상공인조합 62곳 ‘메가쇼 시즌1’ 참가

소진공, 일산킨텍스서 판로지원

전국의 주요 소상공인 협동조합들이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자 박람회에서 제품을 뽐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일부터 20일까지 경기 일산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메가쇼 시즌1’에 소상공인 협동조합관을 꾸려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판로지원 사업’에 선정된 62개의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참여한다.

▲가락시장농수산식품협동조합(황토소금, 육포, 쿠키 등) ▲고양식용꽃협동조합(꽃차, 꽃사탕, 저염꽃차소금 등) ▲금산진생협동조합(홍삼

/김승호 기자



## 웰스 ‘전기레인지 2구 인덕션’

웰스가 주방 공간 활용 편의성을 높인 ‘웰스 전기레인지 2구 인덕션’(사진) 신제품을 내놨다. 이번 신제품은 두께 6.5cm, 무게 4.5kg 얇고 가벼운 포터블 방식으로 전원 연결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두가지 메뉴를 동시에 조리할 수 있는 2구 인덕션을 채용해 메인 조리 기구로 활용하거나 식탁 위에서 바로 조리할 수 있고, 보온이 필요한 요리를 위한 보조 조리기로도 제격이다.

/김승호 기자

## 공영쇼핑, 지식재산권 신고센터 오픈

공영쇼핑이 상표권·특허권·저작권·초상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 직접 소통창구인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를 열었다.

17일 공영쇼핑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는 공영쇼핑이 판매하는 상품 중 본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고하면 된다. 공영쇼핑 온라인몰 사이트 내 하단에 마련돼 있다.

그동안 지식재산권과 관련 문의를 대표 이메일 접수를 받아왔지만 신고 이력관리나 조치 과정 등을 알 수 없어 신고관리 체계가 미흡했다.

이번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접수가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처리정도 시스템을 통해 즉시 확인 가능하다. 이메일과 SMS로 안내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도 높였다.

권리자는 신고 후 판매자의 소명 내역과 처리결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영쇼핑은 판매자가 소명이 없거나 불충분하다면 절차에 따라 상품 판매 중단 또는 즉시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공영쇼핑 온라인상품팀 강필선 팀장은 “이번 지식재산권 신고센터 운영을 계기로 정직한 제품의 판매와 구매가 이뤄지는 안전한 온라인 상거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한솔홈데코 친환경 단열재 ‘PF보드’

한솔홈데코가 건축용 친환경 단열재인 ‘PF보드’ (사진)를 새로 선보였다. ‘PF보드’는 건물 벽면과 지붕의 열 손실을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축용 단열재료, 열경화성 플라스틱 수지를 친환경적으로 발포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한 고성능 제품이다. 한솔홈데코의 PF보드는 불에 잘 타지 않고 화재 시 유독가스 발생이 없어 안전하며 이를 인정받아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원에서 준불연 인증도 획득했다.

/김승호 기자